
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

2024. 11.



기획조정관실
법제교류협력담당관

I. 행사 개요	1
II. 개최 성과 및 시사점	3
III. 향후 계획	4

[붙임 1] 현장 사진

I. 행사 개요

1 개최 배경

- 한국의 사회·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한 우리 법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,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법제를 소개하고 상호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 마련
- AI가 법률 산업에 적용된 ‘리걸테크’라는 새로운 산업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산업 현황과 법제 방향, 적용 가능한 공공서비스 사례와 아시아 국가간 협력방안 논의

2 일시·장소·주제 및 참석자

* 공동주최: 법제처, 한국법제연구원

- (일시) 2024. 11. 1. (금) 14:30~18:00 (이후 만찬)
- (장소) 여의도 글래드
- (주제) AI와 법률의 만남, 아시아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

< 참고 : 역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주제 >

- (제1회) 법제 교류 현주소와 나아갈 길('13. 11월)
- (제2회)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 현황과 발전방향('14. 10월)
- (제3회)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('15. 11월)
- (제4회) 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전략('16. 11월)
- (제5회) 재난·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연구('17. 11월)
- (제6회)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('18. 10월)
- (제7회)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('19. 10월)
- (제8회)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('20. 11월)
- (제9회) 아시아 각국의 법제 행정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('21. 10월)
- (제10회) 디지털 시대,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('22. 9월)
- (제11회)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,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교류협력 방안('23. 10월)

- (참석자 : 약 250명) 처장님, 차장, 기획조정관 등 법제처 참석자 / 외국 법제기관 VIP, 수행원, 연사 / 그 외 일반 참석자

③ 회의 구성 및 연사주제

○ 개회식, 세션별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

* 기조연설 생략

○ 우리나라의 리걸테크 기업 전시부스 운영, 회의 직후 만찬 개최

시 간	내 용	연 사
14:30~14:35 ('5)	개회사	이완규 법제처장
14:35~14:40 ('5)	환영사	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
14:40~15:20 ('30)	해외축사	VONGSEY Vissoth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
		Pakorn Nilprapunt 태국 내각사무처 장관
		NGUYEN Khanh Ngoc 베트남 법무부 차관
15:20~15:30 ('10)	기념촬영 및 휴식	
(세션1) 아시아 각 국의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규제·지원 법제 사회 : 김중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 본부장		
15:30~15:50 ('20)	국내연사 발표	구태언 리걸테크 산업 협의회 공동 의장
15:50~16:10 ('20)	해외연사 발표	Paul Neo 싱가포르 법률 아카데미 최고운영 책임자 겸 최고재무책임자
16:10~16:30 ('20)	해외연사 발표	김정진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교수
16:30~16:50 ('20)	종합토론	Narun Popattanachai 태국 내각사무처 규제영향분석 및 법률평가 팀장
		석동현 법무부 검사
16:50~17:00 ('10)	휴 식	
(세션2) 아시아 지역 리걸테크 관련 공공서비스와 협력방안 사회 : 최승필 한국외대 법전문 교수		
17:00~17:15 ('15)	발표	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사업본부 본부장
17:15~18:00 ('45)	종합토론	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장
		정지은 코딕 대표이사
		NGUYEN Van Cuong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장
		AMARSANAA Ochirbat 몽골 국제울란바타르 대학교 몽한법학연구소장
		RAJABOYEV Dilmurod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법률정보국 부국장
18:00~	정리 및 폐회	

II. 개최 성과 및 시사점

1 개최 성과

- (연사 섭외)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· 중국 · 태국 · 베트남 · 몽골 ·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전문가 및 국내 리걸테크 기업을 초청함으로써 아시아의 민 · 관을 폭넓게 아우르는 연사 구성
- (축사) 캄보디아 부총리 · 태국 내각사무처 장관 · 베트남 법무부 차관이 현장 참석, 축하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법제분야 대표 국제회의로서의 위상 제고

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현장



주요 참석자 기념촬영



귀빈 대상 만찬

- (회의 주제) 글로벌 사회에서 AI에 대한 법제적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‘리걸테크’를 주제로 선정한 결과, 많은 국내 · 외 법제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 도출
- (만족도)

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만족도 조사 결과



(1번) 내용 만족도: 95%가 만족 이상



(3번) 주제 시의성: 95%가 동의 이상

- (홍보) 신문 지면광고 4건*, 영자신문(코리아중앙데일리) 처장님 기고문 게재, 코리아헤럴드 사전 인터뷰, 연합뉴스 TV 현장 인터뷰, 행사 당일 보도자료 등 다양한 언론 홍보 추진
 - * (영자신문) 코리아헤럴드, 코리아중앙데일리, (일간지) 서울신문, 한국경제
- 우편 초청장 464부(국문 234, 영문 230부), 558개 중앙행정기관·대학·지자체 등에 행사 홍보 공문 발송
 - * ALES 홈페이지, 온라인 뉴스레터, 법제처 SNS 계정 및 법제처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적극 홍보
- (부처 협업) 리걸테크 산업의 소관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의 담당자를 연사로 초청,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방향 논의
 - (민관 협업)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리걸테크 기업들을 초청, 자사의 서비스를 전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의 참석자들의 리걸테크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기업들의 국내·외 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

2 시사점

- (연사 섭외) 기후 변화·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같은 미래 법제 쟁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리걸테크 산업계가 ALES에 참석했다는 점이 고무적
 - ☞ 향후 ALES에서도 아시아의 법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제와 관련된 학문·기술 전문가도 초청 필요
- (회의 주제) 앞으로도 ALES에 많은 아시아 법제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미래 법제 쟁점을 발굴, 회의 주제로 선정 추진

III. 향후 계획

-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주제 선정: ' 25. 2월
- 아시아 법제 현안 연구용역 발주 및 착수: ' 25. 3월
-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행사대행용역 발주 및 착수: ' 25. 4~5월
-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: ' 25. 10월 또는 11월(예정)

붙임 1 현장 사진

○ (회의 이전)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발족식



○ (회의 이전) 리걸테크 기업 전시부스 관람



○ (ALES) 개최식



○ (ALES) 1, 2 세션

